

특별전시

# 관음보살과 정병

觀音菩薩과  
淨瓶

2009년  
10월 27일 - 12월 6일

매주 월요일 휴관

 국립경주박물관  
GYEONGJU NATIONAL MUSEUM



관음보살觀音菩薩,  
자비慈悲의 화신化身



관음보살 金銅觀音菩薩立像  
충남 공주시 의당면 출토  
삼국시대三國時代 백제百濟 7세기 전반  
국립공주박물관  
국보 247호

1974년 공주시 의당면 송정리  
한 절터에서 발견된 관음보살상이다.  
보관에 화불이 새겨져 있고,  
오른손은 연꽃 봉오리를, 왼손은  
정병을 쥐고 있다. 이 상像은  
관음보살이 보관에 화불이 새겨져 있고  
정병을 들고 있는 모습으로  
정형화되는 과정을 잘 보여준다.

관음보살觀音菩薩을 인도에서는  
아발로키테스바라Avalokiteśvara라고 합니다.  
불교 경전을 한자로 번역하면서 관세음보살觀世音菩薩  
또는 관자재보살觀自在菩薩이라 하였으며,  
이를 줄여 관음보살이라 불렀습니다. 자비의  
화신이자 갖가지 신통력을 가진 초월자로서  
대승불교大乘佛教에서 가장 사랑받는 보살 가운데  
하나입니다.

관음보살을 불상이나 불화로 나타낼 때는 보통  
보관寶冠에 화불化佛이 있으며, 지물持物로 연꽃이나  
보주寶珠, 정병淨瓶을 들고 있습니다.  
삼국시대 불상과 통일신라 불상을 살펴보면,  
초기에는 관음보살상은 보주나 연꽃봉오리를 쥐고  
있다가 점차 정병을 쥐게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밀교密敎에서는 십일면관음보살十一面觀音菩薩이나  
천수천안관음보살千手千眼觀音菩薩과 같이 얼굴과  
팔이 많이 달려 있는 다면다비多面多臂의 관음보살을  
조성하기도 하였습니다.



수월관음도 水月觀音圖  
조선朝鮮 1730년  
한국불교미술박물관  
보물 1204호

영조英祖 6년(1730년) 당대 최고의  
화가畫師이던 의겸義謙선 등이  
그린 수월관음도로 당대 최고의  
작품이다. 조선시대 수월관음도는  
고려 수월관음도와 배치구도는  
비슷하나 정병을 보고 있는 자세,  
천의의 색, 대나무와 바위의 형태,  
그리고 정병의 형태 등이 눈에 띄게  
달라졌다.

Avalokiteśvara,  
the Deity of Mercy

Avalokiteśvara is the Sanskrit name for the Buddhist deity known in Korea as “Gwaneum Bosal.” This Sanskrit name is transliterated as “Guanshiyin Pusa” or “Guanzizai Pusa” in Chinese, which is pronounced in Korean as “Gwanseum Bosal” or “Gwanjajae Bosal,” of which “Gwaneum Bosal” is the shorten form. Known as the deity of infinite compassion and mercy, Avalokiteśvara is one of the most popular Bodhisattvas in Mahayana Buddhism, who is believed to be endowed with a panoply of supernatural powers.

정병淨瓶,  
관음보살觀音菩薩의 상징象徵



물가풍경 무늬 정병 靑銅銀人絲蒲柳水禽文淨瓶  
고려高麗 12세기  
국립중앙박물관  
국보 92호

고려시대 일반적인 정병의 형태이며,  
0.5mm 굵기의 은사로 몸체 전면에 섬 위의  
버드나무, 크고 작은 섬, 고기잡이 배,  
წყ신꾼, 오리와 기러기 등을 아기자기하게  
묘사하고 있다. 특히 주입구 뚜껑과  
병목 윗부분에는 투각한 은판이 덮여 있는데,  
원래는 금도금이 되어있었다.  
생동감 넘치는 무늬는 푸른 녹과 절묘한  
조화를 이뤄 한층 아름답게 보인다.

Kundikas,  
a Symbol of Avalokiteśvara

정병淨瓶은 깨끗하고 맑은 물을 담은 물병입니다. 불교에서 물을  
담는 용기는 많이 있지만, 물을 넣는 주입구注入口가 몸체에,  
물을 따르는 주출구注出口가 병목 위에 붙어 있는 것을 특별히  
정병이라 일컫습니다. 이러한 모양의 것을 북송北宋의 서경徐兢이  
고려를 다녀간 후 지은 『선화봉사고려도경宣和奉使高麗圖經』에도  
정병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미 오래 전부터 사용하던  
용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원래 정병은 인도에서 수행하는 승려가 마실 물을 담던  
일상용기였습니다. 그런데 『청관음경請觀音經』에는 관음보살이  
버드나무 가지와 맑은 물로 병을 고친 이야기가 나옵니다.  
맑은 물을 담은 용기인 정병은 곧 관음보살의 상징이 되었으며,  
불교의 의식구儀式具나 공양구供養具로도 활용되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형태의 정병은 중국에서는 당대唐代 이후  
많이 제작되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관음신앙의 유행과 더불어  
통일신라시대에 나타나기 시작하여 고려시대에 널리  
유행하였습니다.

물가풍경 무늬 정병 靑磁陶刻柳蘆水禽文淨瓶  
고려高麗 12세기  
국립중앙박물관  
보물 344호

이 정병은 국보 92호  
물가풍경 무늬 정병靑銅銀人絲蒲柳水禽文淨瓶을  
재료를 바꿔 청자로 만든 것이다.  
무늬 역시 음각선을 파고 은사를 감입한  
국보 92호 물가풍경 무늬 정병과 달리  
양각으로 갈대밭에서 노니는 기러기 한 쌍과  
버드나무 아래에서 쉬고 있는 원앙을  
새겼다.



Kundikas, bottles containing clear, purified water, were used  
in Buddhist ceremonies. A kundika has an opening at the  
shoulder through which water is filled, and a top finial above  
the neck which functions as a spout.

The first kundikas were ordinary water containers used by  
monks in India. At the dawn of the fifth century, when the cult  
of Avalokiteśvara was practiced to heal diseases using willow  
branches and clear water in China, kundikas were used in  
Buddhist ceremonies. This practice led to the crafting of images  
of Avalokiteśvara holding a kundika and willow branches.  
In China, kundikas were manufactured in large quantities after  
the Tang Dynasty. In Korea, kundikas appeared in the Unified  
Silla period, and became widely popular in the Goryeo period.

전시품 목록

No.	명칭 名稱	제작시기 製作時期	크기 規模	소장처 所藏處
<b>1. 관음보살 觀音菩薩, 자비慈悲의 화신化身</b>				
1	수월관음도(영인본) 水月觀音圖(影印本)	고려高麗 1310년	419.5×252.2 cm	원본 일본 카가미(鏡) 신사 영인본 통도사성보박물관
2	묘법연화경 권제7 妙法蓮華經 卷第七	고려高麗 1385년	23.0×49.3 cm	국립중앙박물관
3	김정희필 관음경 金正喜筆 觀音經	조선朝鮮 19세기	9×2157 cm	개인
4	묘법연화경 관세음보살보문품 언해 妙法蓮華經 觀世音菩薩普門品 諺解	조선朝鮮 1697년	28.0×18.8 cm	개인
5	관세음보살영험약초 觀世音菩薩靈驗略抄	조선朝鮮 1728년	27.0×18.2 cm	개인
6	관세음보살 사십이수진언 觀世音菩薩 四十二手眞言	조선朝鮮 1485년	25.3×16.8 cm	개인
7	관세음보살예문 觀世音菩薩禮文	조선朝鮮 1755년	27.2×16.7 cm	개인
8	관음보살 국보 247호 金剛觀音菩薩立像	삼국시대(백제) 7세기 전반 三國時代(百濟)	높이 25.0 cm	국립공주박물관
9	관음보살 金剛觀音菩薩立像	통일신라統一新羅 8세기	높이 12.4 cm	국립중앙박물관
10	관음보살 金剛觀音菩薩立像	통일신라統一新羅 8세기	높이 12.6 cm	국립중앙박물관
11	관무량수경 觀無量壽經	조선朝鮮 1853년	20.0×14.7 cm	동국대 중앙도서관
12	수종사 아미타삼존불 水鍾寺 阿彌陀三尊佛	조선朝鮮 1628년	높이 10.0 cm	불교중앙박물관
13	아미타여래설법도 阿彌陀如來說法圖	조선朝鮮 19세기	84.8×129.2 cm	국립경주박물관
14	수월관음도 보물 1204호 水月觀音圖	조선朝鮮 1730년	142×104 cm	한국불교미술박물관
15	대방광불화엄경 권제68 변상판화 大方廣佛華嚴經 卷第68 變相版畫	고려高麗 13~14세기	24.0×58.2 cm	개인
16	관음보살 銀製觀音菩薩坐像	고려高麗 13~14세기	높이 9 cm	동국대 경주캠퍼스 박물관
17	관음보살 金銅觀音菩薩坐像	고려高麗 12~14세기	높이 18.0 cm	동국대 박물관
18	몸에 지니는 작은 보살 金製護身菩薩像	고려高麗 12~14세기	높이 2.6 cm	국립중앙박물관
19	관음보살이 새겨진 거울 線刻水月觀音鏡像	고려高麗 12~14세기	9.5×4.5 cm	국립중앙박물관
20	관음보살이 새겨진 거울 線刻觀水觀音鏡像	고려高麗 12~14세기	높이 12.0 cm	국립중앙박물관
21	대방광불화엄경 권제47 大方廣佛華嚴經 卷第47	고려高麗 14세기 말	21.7×43.0 cm	국립중앙박물관
22	굴불사지 관음보살(탑본) 掘佛寺址 線刻觀音菩薩立像(榻本)	통일신라統一新羅 8세기	235.5×96.5 cm	국립경주박물관 검리나 교수 기증
<b>2. 정병淨瓶, 관음보살 觀音菩薩의 상징象徵</b>				
23	관음보살이 새겨진 거울 線刻楊柳觀音鏡像	고려高麗 12~14세기	높이 22.4 cm	국립중앙박물관
24	정병 銅製淨瓶	중국中國 원元 1323년 이전	높이 21.4 cm	국립중앙박물관
25	정병 靑銅淨瓶	고려高麗	높이 16.4 cm	국립중앙박물관
26	정병 靑銅淨瓶	고려高麗	높이 37.8 cm	국립중앙박물관
27	정병 靑銅淨瓶	고려高麗	높이 36.9 cm	국립중앙박물관
28	『만리』자 무늬 정병 靑銅銀人絲貫字文淨瓶	고려高麗 14세기	높이 23.2 cm	국립중앙박물관
29	물가풍경 무늬 정병 국보 92호 靑銅銀人絲繪柳水禽文淨瓶	고려高麗 12세기	높이 37.5 cm	국립중앙박물관
30	물가풍경 무늬 정병 靑銅銀人絲繪柳水禽文淨瓶	고려高麗 12~13세기	높이 37.5 cm	국립중앙박물관
31	청자 물가풍경 무늬 정병 보물 344호 靑磁陽刻柳蓮水禽文淨瓶	고려高麗 12세기	높이 34.2 cm	국립중앙박물관
32	청자 연꽃 모란 무늬 참외 모양 정병 靑磁陰刻蓮花牡丹文瓜形淨瓶	고려高麗 12세기	높이 35.0 cm	국립중앙박물관
33	청자 모란 넝쿨 무늬 정병 靑磁陰刻牡丹唐草文淨瓶	고려高麗 12세기	높이 28.4 cm	국립중앙박물관
34	청자 구름 무늬 정병 靑磁象嵌雲文淨瓶	고려高麗 12세기 후반~13세기	높이 34.2 cm	국립중앙박물관
35	청자 연꽃 버드나무 무늬 정병 靑磁象嵌蓮花柳文淨瓶	고려高麗 12~13세기	높이 26.7 cm	국립중앙박물관

※ 전시품 목록의 번호는 설명카드 번호와 일치합니다.